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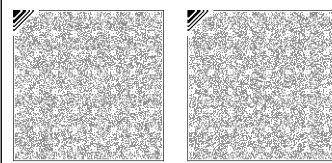


〈화제〉서울대 합격한
지체장애 3급 김하림씨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33호

2012년 2월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일정 확정

4월 29일 오전 8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IPC 공인' 확정

국내·외 마라토너 관심 집중...세계·한국신기록 갱신 기대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9일(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앞에서 개최된다. (사진-지난 20회 대회 폴코스 출발장면)

세계 휠체어마라토너의 축제,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국제 공인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이하 대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2월 15일(수)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본 경기를 4월 29일(일) 오전 8시 잠실주경기장 앞에서 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회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 명성과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휠체어마라토너들이

42.195km의 풀코스, 21.0975km의 하프코스 등에 참가해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풀코스 부문의 새로운 세계기록 수립과 지난 대회에서 홍석만 선수가 세웠던 한국신기록의 갱신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지장협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국제장애인육상연맹(IPC Athletics) 공인’이 확정되며 참가 선수들의 대회기록이

국제적인 ‘공인기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내외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대회장에 인접한 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마련했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국내외 TOP CLASS 선수들의 참가를 독려했음은 물론, 선수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문화탐방’ 등의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대회장인 김정록 중앙회장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나누는 마당”이라고

대회의 의미를 밝히며 “21회를 맞는 이번 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회 대회에서는 스위스의 마르셀 후크(Marcel Hug, 26세) 선수가 풀코스 부문의 우승을 차지했다. 마르셀 후크 선수는 19회 대회의 우승자인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 38) 선수보다 1초 빠른 ‘1시간 23분 3초’의 기록으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두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를 연출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대회에는 ‘새로운 한국기록’이 달성됐다. 2008 베이

징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장애인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 선수(36, 제주도청)는 기존에 자신이 보유해왔던 한국 기록(1시간 29분 50초)을 3분여 앞당긴 ‘1시간 27분 4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달성했다.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KBS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찬한다.

발행인 칼럼



“자원봉사,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끝에 취업한 후에는 사무실 간이 침대가 가장 포근한 제 쉼터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이 사회에 공고히 남아 있으며 그 힘겨운 싸움을 저는 물론, 전국 252만 장애인들이 힘겹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제가 가는 곳곳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인과 친구 또는 이웃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단순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목적인 학생들로 더러 있습니다만, 자녀와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봉사에 임하는 가족들과, 장애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장애인 이해·인식 교육’을 자청해서 받는 학생 및 기업체의 임직원들을 볼 때면 머지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올 것 같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경험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고무적인 현상을 자주 접합니다. 특히

저희 협회에서 매년 봄에 개최하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수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학생·주부·기업체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대회일정을 협회 측에 문의하는 건 기본이고, 자신이 연을 맺은 국내외 휠체어마라토너들과 SNS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외국 장애인선수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은 물론, 선수와 그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원봉사자가 지난 1년간의 안부를 정답게 주고받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의 벽에 막혀 소외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인기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그들과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넘어 보다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는 4월 29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앞에서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됩니다. 신체적 장애를 당당히 극복한 전 세계의 장애인마라토너들은 물론, 이 세상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감동의 현장입니다.

4월 29일, 잠실주경기장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중앙회장 **김정록**

◆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 (1월16일~2월 15일)◆

| 월/일 | 내 용(장소) | 일시 | 내 용(장소) |
|------|--|------|---|
| 1/17 | *한나라당 비대위 장애인단체 의견수렴회 (이룸센터 대회의실) *아·태연대 제15차 집행위원회 (이룸센터 다목적프로그램실) | 2/2 |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 회의 (한국장애인재단 회의실) |
| 1/18 | *제32회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회의 (이룸센터 대회의실) | 2/9 | *시·도협회장 회의 (대전유성호텔 라일락홀) |
| 1/26 | *장애인총선연대회의 (이룸센터 대회의실) | 2/13 | *민주통합당 장애계 간담회 (이룸센터2층 교육실1) |
| 1/30 | *한나라당 비대위, 장애계 정책토론회 (국회본청 245호) | 2/14 | *인덕학원재단 이사회 (인덕학원) *이룸센터 운영위원회 (이룸센터 대회의실) |
| 1/31 |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시설장 임명장 수여식 (이룸센터 회장실) *복지TV·장애인신문 자문위원 위촉식 (복지TV 회장실) | 2/15 | *나사렛대 MOU (이룸센터 회장실)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장애인단체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김정록 중앙회장이 장애계 인재영입과 관련한 조언을 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2012 총선 장애인 공약 발표 및 장애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록 중앙회장이 한명숙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회장 ‘복지TV · 장애인신문 자문위원’ 위촉



1월 31일 열린 ‘장애인신문 · 복지TV 자문위원 위촉식’ 모습. ©웰페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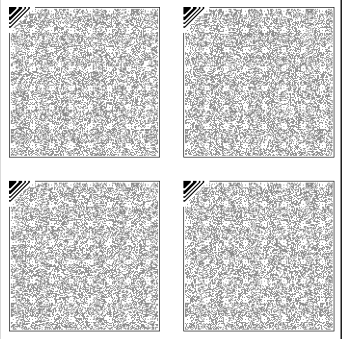
김정록 중앙회장이 복지TV와 장애인신문(복지TV 발행)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1월 31일 (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지TV 회장실에서 열린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상용 원장 등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복

지TV와 장애인신문이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주)디엔케이 바이오와 파트너십 협약 체결

건강기능식품 지원, 장학 사업 등 추진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윤석연 협회장(가운데)과 (주)디엔케이 바이오의 임직원들이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 협회)는 2월 3일(금) 협회 사무실에서 (주)디엔케이 바이오(대표이사 한길동)와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 및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주)디

엔케이 바이오는 당뇨장애인을 위한 혈당조절용 건강기능식품 지원 사업, 장학지원 사업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한길동 (주)디엔케이 바이오 대표이사는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적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장재권 협회장이 지난 8일(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브리핑실에서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유공자’에게 주는 경북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장 회장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9월 15일을 ‘장애인 문화의 날’로 지정,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 1천 300여명에게 관람 기회를 부여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장 회장은 “장애 · 비장애인이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재권 협회장, 경북도지사 감사패 받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 유치 공로 인정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장재권 협회장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고성지회 ‘장애인 콜택시’ 운영

올해부터 3년간... 1~2급 장애인 우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가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경남협회 고성군지회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지회장 김상수)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다.

고성군지회는 최근 경상남도 고성군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업체로 선정, 올해부터 3년간 4대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게 됐다.

지난 1월 4일간의 준비 기간

을 거친 고성군지회는 현재 수익성보다는 장애인의 고용창출은 물론, 장애인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자 고성군 내는 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해 요금이 1500원부터 최고 3000원이며, 시외지역 요금은 인근 통영시까지 3000원, 창원시까지 9100원(마산 6700원)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우선이며, 임산부와 65세 이상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경상남도 전화상담실(1566-4488)로 즉시콜 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 실시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에서 실시한 ‘명절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모습.

인천협회 연수구지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지회장 정인식)는 1월 19일(목)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명절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인식 연수구지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실시된 오늘의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일자리 선도하는 경주시”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대식 및 직무교육’ 열려



2월 10일 개최한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대식 및 직무교육' 행사 모습.

경북협회 경주시지회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대식 및 직무교육’이 경주시 주최로 2월 10일(금)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인들의 직업생활 및 사회 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대식 및 직무교육’이 일자리 참여자 39명을 비롯해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의 고용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이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동 및 실과

소에 18명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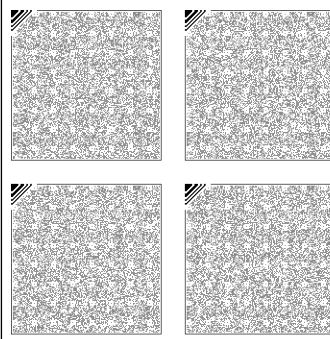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지회장 이상인)에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2012년 2월 1일부터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오동, 서면, 서면보건소의 행정기관 3곳 등 13곳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행사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1부 발대식, 2부 참여자 직무교육 등 1시간 30분에 걸쳐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지침교육, 사업수행요령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사업참여자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병종 시민생활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차별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경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실시

민속놀이 체험...오곡밥, 부럼 함께 나눠

서울협회 동대문구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지회장 장금영)는 지난 6일(월) 오전 10시부터 장애인무료급식소(동대문구 용신동 소재) 앞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실시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내 장애인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은 물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민속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150여명의 장애인가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가 2월 6일 실시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투호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윷놀이,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오곡밥과 부럼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보냈다.

강원협회 속초시지회

대구의 한 의류업체가 속초지역 장애인을 위해 겨울용 패딩점퍼 300벌을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LM코리아대표 권혁만(63)씨는 1월 26일 2,000만원 상당의 점퍼를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지회장 이춘하)에 전달하고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권씨는 지난해 가을 성호아파트부녀회가 마련한 바자회에 참가하면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결심했다.

특히 40년째 의류사업을 해오면서 대구지역에서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이 고향인 권씨는 인근

LM코리아, 지회에 패딩 300벌 전달



LM코리아 측이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 겨울패딩을 전달하고 있다.

고성군 죽왕면이 처갓집으로 속초와 인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부가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을 연결한 이옥

자(성호아파트부녀회장)씨는 “바자회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권 사장의 도움에 크게 감사한다”며 “사업체의 번성을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

인천협회 동구지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지회장 고일봉)는 지난 9일(목) 지회 사무실 앞 게이트볼장에서 ‘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들이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택상 동구청장 및 내외빈을 비롯한



동구지회가 2월 9일 개최한 ‘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

장애인과 가족 200여명이 모여 윷놀이를 즐기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사 동정

- 인사이동 이춘희 중앙회 여성정책팀장
→ 서울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 임상범 중앙회 법정책팀장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장
- 박미현 중앙회 홍보협력팀장(체육정책팀장 겸직)
→ 중앙회 체육정책팀장
- 이현일 중앙회 홍보협력팀 대리
→ 중앙회 홍보협력팀장(직무대리)
- 신연화 서울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 박연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 사 직 황주연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33호 2012년 2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공석 상임위원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 장항숙 위원이 사퇴함으로 인하여 한 달이 넘도록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석 30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

항상 선거 때문에는 바쁘면서, 또한 여야 대립으로 국회는 공전시켜 자신들의 일을 유기하면서 행정부나 국민들에 대하여는 여과 없는 비판을 쏟아 있으니 국회도 그 어떤 이유 없이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 11명 중 장애인은 장항숙 위원이 사퇴함으로써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전수는

장애인 관련이 전체의 63%나 되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과 상징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전원위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상임위원의 몫이 여성이므로 여성으로 뽑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장애여성은 여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이면서 여성을 정하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양분하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정치력이 막강한 인물이 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력을 높일 수 있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인력증원과 예산 배정, 위상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오기를 바랄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인권은 양심이며, 철학이며 정신인 것이지 능력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그 순수성과 독립성은 훼손되고 퇴색될 것이다.

국민들은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 투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경력만은 반드시 언론보도의 횡수나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된 인물은 전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 이슈는 15가지 장애 유형별 특성과 수십 가지 인권침해나 차별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편중된 이슈가 아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인권관련법과 여성의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찾아주기를 바란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시점부터 이 법의 주관기관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다. 그리고 최경숙, 장항숙 등 장애인 여성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왔다. 그런데 이번 공석에 장애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인권 최고 보루로서의 위상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인권은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법해석을 하는 비인권적 행위를 단죄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공석인 상임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임명되어야 하며, 유엔 WHO의 장애인 인구 15% 발표나, 8대 소외계층이나 인권취약계층 중 장애인이 그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상임위

원 한 자리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추천 몫인 인권위 상임위원 몫에 장애인 당사자의 추천으로 인권위 감수성을 지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는 당연함을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감시한다는 모순된 길을 걸을 것인가.

모든 장애인들은 지켜 봐 왔으나 이미 그 기한을 넘겼으므로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지켜나간다는 이상적 권리를 대변해 주는 당인가를 ‘민주통합당’은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청양군지회 ‘백세김’ 인기 상종가

수익 3,300만원 증가...지역 명물로 자리매김

충남협회 청양군지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이병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생산물 ‘백세김’이 청양군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백세김은 질 좋은 원초(가공되기 전까지의 김의 원재료)와 기름을 재료로 품질 향상과 판로 개척에 노력한 결과 올 설 명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300만원이 증가한 1억 3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백세김은 그동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종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시설과 기능보강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김구이 설비를 위생적인 전자동 시스템으로 구축 중이다.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측은 “청



청양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서 생산하며 지역의 명물로 성장하고 있는 ‘청양김’

결한 생산 시스템을 통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명품 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판매망을 넓히고 현재 24명인 고용인원을 점차 확대해 장애인 고용 기회를 늘릴 것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은 물론 인터넷 판매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꿈을 실현해가는 일류 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청양군도 청양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백세김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레일 전남본부 보성역, 설을 앞두고 나눔의 온정을 실천했다.

코레일 보성역의 ‘온정의 손길’ 훈훈

독거노인에 쌀·라면 전달...지회에 성금 전달

전남협회 보성군지회

코레일 전남본부 보성역의 임직원들이 지난달 18일(수) 전남남도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지회(지회장 이종근)를 방문, 생필품과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지역 내 장애인들과 나눔의 온정을 함께하기 위해 지회를 방문한 코레일 측은 이날 지역 내 독거노인 두 가정을 방문해 쌀 40kg(20kgX2포)와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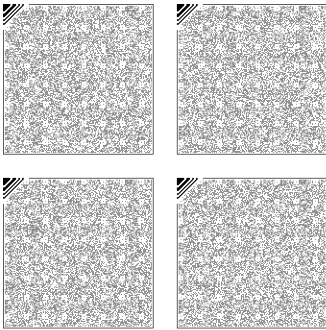
2박스를 전달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또한 보성군지회 측에 성금 1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보성군지회를 방문한 보성역장(이길우)은 성의껏 정성을 모아준 직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명절 어려운 이웃에 안부 전하기, 1사 1산1강 가꾸기 환경보호활동, 자매결연단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도 함께 진행



17일 복지관에서 실시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에서 한 장애인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래인복지관(관장 강인철, 이하 북부장복)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 이하 북부지원센터)는 1월 17일(화)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부지원센터는 범죄피해 발생 시 지원을 요청하는 범죄피

해자에게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상해 치료비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북부지원센터는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함께 북부장복을 방문,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진행하여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과 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실생활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법률상담에 직접 참관한 북부장복 강인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대상 범죄에 북부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대응하며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장애인 피해자들의 권익 옹호와 2차 피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복지관)이 1월 26일(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부교육청 특수지원센터(서부교육청장 노평래, 이하 특수지원센터)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조기발견과 맞춤 교육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평래 서부교육청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유성복지관 윤석연 관장 및 복지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 체결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유성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간 프로그램 행사 및 각 기관지원사업에 대한 상호협의, 기타 상호교류·협력 기능분야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류·협약 체결

특수교육 학생의 조기발견 및 맞춤교육 추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조기발견과 맞춤 교육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연 관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복지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특수지원센터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복지관 내에서 장애아동과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간담회 실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에서는 2월 3일(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조은숙 외 1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소개, 사업기간, 참여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무형태, 보수 지급에 대한 소개를 실시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2월~11월 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일자리참여자의 적성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3일 실시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간담회’ 행사 모습.

및 능력에 맞는 직무를 배치할 계획이다.

박선하 김천복지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무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취업 및 창업, 자립으로 연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일자리 확대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복지관)은 지난 8일(수)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12년 이용고객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2012년도 신규사업, 특화사업 홍보 및 서비스 이용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오전에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 오후에는 성인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준비한 한지혜 교육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는 소통하는 복지관, 이용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복지관을 향한 2012년 첫 걸음이다”라고 소개

‘2012년 사업설명회’ 개최



2월 8일 열린 ‘2012년 이용고객 대상 사업설명회’에서 기초재활부 박요삼 부장이 ‘신규사업 및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며 “오늘의 설명회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이

복지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정위탁기관 선정

오는 2014년까지 사업 연속 수행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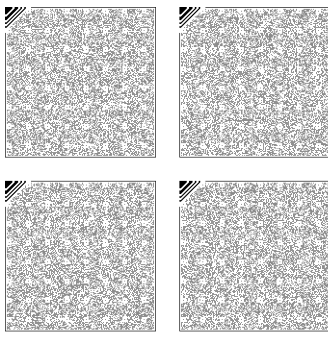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복지관)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에서 주관하는 ‘2012년 산재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아산복지관은 지난 2011년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아산시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재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립의지 고취와 직업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 교육과 함께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으로 사격, 도자기 공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산재장애인들의 사회진출에 큰 노력을 한 공로가 이번 선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창호 아산복지관장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산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증가하던 등록장애인, 지난해 ‘주춤’

총 251만 7312명…1000여명 느는데 그쳐

지체장애인 4293명 ↓, 지적장애인 6230명 ↑

꾸준히 증가해오던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난해 처음 주저앉았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12월말 기준 전국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9241명으로 2010년 12월 말 기준인 251만7312명에 비해 1929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동안 등록장애인 수가 2007년 13만7563명, 2008년 14만2076명, 2009년 18만2582명, 2010년 8만77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251만7312명으로 등록장애인 25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133만342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에 비해 4293명이 줄었다. 이어 두 번째는 전년에 비해 664명이 늘어난 청각장애인(26만1067명)이 차지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26만718명(▼1028), 시각장애인 25만1258명(▲1999), 지적장애인 16만7479명(▲6230), 정신장애인 9만4739명(▼1082), 신장장애인 6만110명(▲2968), 언어장애인 1만7463명(▲256), 자폐성장애

인 1만5857명(▲696), 호흡기장애인 1만4671명(▼880), 장루·요루장애인 1만3098명(▲2726), 심장장애인 9542명(▼3322), 간질장애인 8950명(▼822), 간장애인 8145명(▲2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50만5052명으로 전년에 비해 4348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2952명이 감소한 서울시는 41만1590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년에 비해 가장 큰 폭

으로 증가한 지역은 울산으로 8013명이 늘어난 4만8926명이었다.

이어 경남 18만1044명(▲164), 부산 17만1729명(▼1036), 경북 17만479명(▲83), 전남(14만6524명(▼1394), 전북 13만4239명(▲4), 인천 13만2732명(▲917), 충남 13만1108명(▲462), 대구 11만7183명(▲42), 강원도 10만1283명(▲1116) 충북 9만4855명(▲201), 대전 7만1626명(▲462), 광주 6만8675명

(▲157), 제주 3만2216명(▲342)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수별로는 6급이 60만6698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287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1급은 20만812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873명이 줄었다. 2급은 35만1176명, 3급은 43만3044명, 4급은 38만9490명, 5급은 53만7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에이블뉴스〉

윤석용 의원,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을) 선거구민과 연관된 단체에 축구공 100개와 30여만원 상당의 김·빵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장애인체육회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단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내용의 투표

운동을 시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민주당(현 통합민주당)이 장애인체육회 후원 물품인 옥매트를 불법 투표 운동을 벌인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새누리당 윤석용(61) 의원을 14일(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월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천275만원 상당의 옥매트 250개를 횡령, 지역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된 옥매트가 동료의원 사무실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역 복지단체 등에 전달돼 이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다른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사회적 기업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표 청각장애인 카페 방문해 밝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화) “사회적 기업이 뿌리내리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감동인물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이 청각장애인인 서울 종로구의 홍차전문점 ‘티아트’를 찾아 박정동 대표를 만난 뒤 같이 말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분들이 일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가 마련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뜻이 있어서 이 곳에 왔다”며 “사회적 기업이 이런 카페의 형태가 아니라도 맞춤형의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동 대표는 박 위원장을 만난 뒤 “귀한분이 와주셔서 힘이 됐다”며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애로 사항도 많았는데 많은 격려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나는 정당에 가입되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의 첫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누상동의 홍차카페 ‘티아트’를 찾아 박정동 대표(오른쪽) 및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조금 놀랐다”고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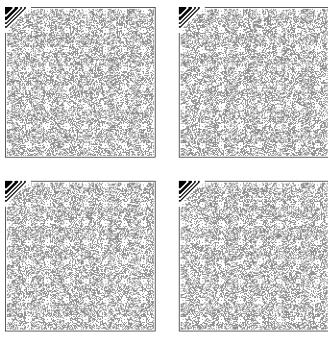
한편 박 위원장은 박 대표를 만나고 나오다 카페 인근 주민이 ‘민족중흥, 유비무환’이라고 적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글씨가 적힌 액자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하자 액자에 ‘박근혜’라고 쓰기도 했다.

이날 방문은 판촉물 사업가인 서장언 씨가 홈페이지(bythe

people.or.kr)에 “우연히 티아트에 들렀다가 청각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아이패드로 모든 주문과 의사소통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의 소중한 일자리와 꿈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추천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박 대표와 카페 직원들과 함께 홍차를 마시고,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초콜릿을 나눠먹는 듯 한 시간가량 머물면서 카페 운영 등에 대한 대화 등을 나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39개 장애인시설서 인권침해 59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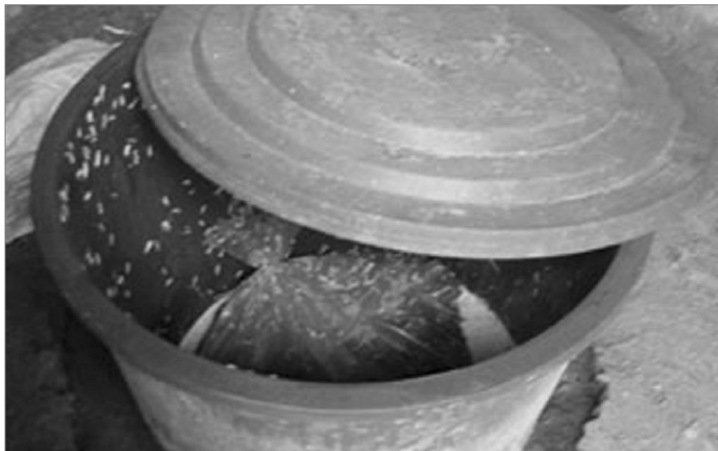
39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중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18건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목) 지난해 두 달간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중간 발표한 인권침해 의심사례 2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건수다.

인권침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와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의 모습. 김치독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7건 형사고발, 18건 시설폐쇄·법정전환 등 조치

복지부, 전국 200곳 인권실태조사 결과 최종발표

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의 남성 장애인 목욕 및 옷 갈아입히기 등에 따른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이 포착됐다.

이중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난 시설의 시설장을 교체 하고 관

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성추행이 의심된 5건의 사례 중 1건은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심층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돼 가해자 2명은 불구속 기소, 피해자 2명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될 예정이다. 또한 의심사례 4건은 시설장에게 피해 우려 대상자에 대한 관찰과 주의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폭행 6건 중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폭행한 1건은 가해자 해임, 사무국장 징계(견책), 시설장 경고조치, 나머지 3건은 가해자 형사고발, 이용자 간 괴롭힘에 가까운 폭행 2건은 피의자·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외에도 학대 5건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금식·결박한 1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고 그 외는 시설장 경고 및 인권교육이 실시됐다. 통장관리·노동력

착취 등 9건 중 이용자의 수당 관리가 부적절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며 통장관리 불투명 시설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권고했다.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식자재 위생 및 환경 불량 15건 등은 해당 지자체의 추가 확인·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

조치, 주의·경고 처분,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에이블뉴스〉

이수근, 둘째아들 ‘뇌성마비’ 고백

재활치료 중...“걸을 수 있다는 게 큰 위안”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방송인 이수근 씨가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 방송 캡처.

인기 개그맨이자 방송인 이수근의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재활 치료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일(화) 방송된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100회 특집 MC 스페셜’에서 게스트

로 출연한 이수근은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쉽지 않은 가슴 속 이야기를 꺼냈다.

녹화 현장에서 이수근은 “둘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왼쪽 뇌 부분이 완전치 않다고

하더라”며 덩덤하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이수근은 “처음엔 오른쪽 팔과 발을 못 썼는데 지금은 재활로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도 있게 됐다. 계속 치료하면 정상인처럼 좋아 질 수 있다고 하더라. 아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 큰 위안이 된다”고 고백해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밖에도 이수근은 “그 동안 내가 유쾌해야 가족도 유쾌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기 싫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니까 더 좋아질 거라 믿는다”며 든든한 가장으로서 가족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다.

장애인 ‘철창 감금’ 시설 결국 폐쇄



시설 생활장애인을 철창에 감금해 폐쇄조치 된 현빈동산에서 장애인을 가두는데 사용한 철제 구조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이하 시)는 장애인을 철창 안에 가둬 놓는 충격적인 학대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향림원 산하 장애인 생활시설인 현빈동산을 폐쇄키로 했다고 지난 1일(수)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현

빈동산 직원들은 광주시의 조사가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거주 장애인들을 방안에 둔 채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 사실상 감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 1급인 B(17·여)양은 8년 넘게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의 철창우리 안에서 걷기 치료와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 시간을 갇혀 지내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은 2009년께까지 생활지도 명목으로 빗자루로 장애인들의 다리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는 체벌을 가했는가 하면, 여성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들의 목욕을 보조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시는 현빈동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전원(轉院) 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장애인가기업 10곳 중 6곳 정부 지원정책 몰라

‘2011 실태조사’ 결과...경영애로 1순위 ‘자금조달’

장애인가기업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금융지원’ 과 ‘세제지원’

장애인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의 ‘2011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 2500개 중 34.5%가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기업 활동 지원정책 인지율보다 1.1% 낮은 것이다.

지원정책을 이용했던 장애인 기업은 ▲자금지원(34.5%) ▲창업교육(16.7%) ▲창업컨설팅(11.5%) ▲판로지원(7.2%) ▲기업컨설팅(6.5%) ▲기업교육(5.8%)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가기업의 약 65%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성화가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가기업은 규모가 적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가기업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애인표준사업장 CPL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장애인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애인가기업의 88.7%는 개인 사업체이고, 93%는 소상공인으로 장애인가기업의 규모가 적고 종사자의 수도 평균 3.14명이었다.

장애인가기업의 55.8%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곳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해 본 적 있다’고 밝힌 기업도 17.2%에 머물렀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자금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인 ‘장애인가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은 19.4%에 불과했다.

장애인가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업 중 발급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25.5%, 발급을 받을 의향이 없다는 기업은 74.5%로 조사됐다. 장애인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가기업의 39.1%가

자금조달을 꼽았다. 이어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31%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6.1%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 2.7% ▲기술개발 2.2% 대금수령 1.8% ▲경영관련 정보 획득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가기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86.8%로 가장 높았으며, ▲세제지원 83% ▲행정절차의 간소화 61.8% ▲정부지원 업종확대 45.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애인가기업의 2009년 평균 자본금은 1억6540만원 2010년 1억6340만원으로 1.2%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2009년 2억1760만원, 2010년 2억3780만원으로 9.2%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한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을 위한 지원과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며 “장애인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뉴스〉

‘학교폭력 근절 안전 Dream 대책’ 추진

충남경찰청, 청각·언어장애인 문자로 신고 가능



충남지방경찰청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 Dream 대책’을 추진한다. 청각 장애인도 문자(#0117)로도 신고할 수 있다.(좌측 세번째 모습)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학교 폭력 피해의 보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 Dream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 ‘학교폭력 신고 접수 창구’를 다양화해 피해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의

로 신고하고, 보복성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토록 하기로 했다.

안전 Dream 신고는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웹(m.safe182.go.kr)를 통해 24시간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 드림’에서는 위치정보·사진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청각·

언어장애인은 문자(#011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경찰서별 ‘학교폭력 안전 Dream팀’을 구성·운영해 신고접수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으로 맡아 처리한다.

사건 접수 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조사관·피해자서포터 등 3명의 경찰관을 전담팀으로 즉시 지정해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포터는 전문인력이나 여경으로 지정해 피해자의 상담·지원을 도 맡는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지원 등을 통한 심리치료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은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수사팀으로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원, 1실 6부 1센터로 조직 개편

정책연구기능·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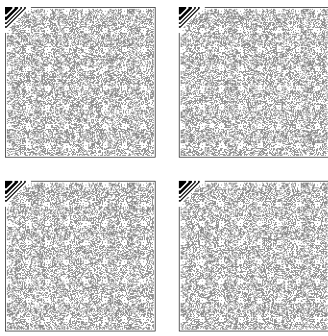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이하 개발원)은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책연구실,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편의증진부, 직업재활종합센터, 이룸센터 등 기존 1실 3부 2센터가 정책연구실(정책개발연구부, 권익증진연구부, 편의증진연구부),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직업재활부, 이룸센터 등 1실 6부 1센터로 개편됐다.

특히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팀, 조사연구팀, 국제협력팀으로 운영해 오던 정책연구실 내에 정책개발연구부(연구기획팀, 서비스연구팀), 권익증진연구부(권익증진팀, 자립지원팀), 편의증진연구부(편의증진팀, BF인증팀) 등 3개 부서를 신설하고, 모두 6개의 팀을 두었다.

직업재활팀, 일자리개발팀으로 운영하던 기존 직업재활종합센터도 직업재활부로 개편됐고, 우선구매팀을 신설해 모두 3개의 팀으로 확대 운영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고발하며 이슈가 된 영화 ‘도가네’ 포스터.

오는 3월 16일부터 장애인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12년까지 징역을 선고 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성추행 최대 6년, 강간 ‘최대 12년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6년, 강간은 최대 12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강제추행은 최대 9년, 강간은 최대 1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

상으로 강간, 강제유사성교,장애인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사유가 신설됐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이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일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의 요건도 엄격화 됐다. 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 합의의 상당성에 대한 확인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처벌불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강도·특수강도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장애인 대상 강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행한 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내달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16일 시행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사회서비스이용...법률’ 2월 5일 시행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2007년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노인 돌봄 등 6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는 주장이 있어 왔다.

법률 시행에 따라 제공기관 지정제가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춰 등록할 경우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도 이뤄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고, 이 결과는 공개된다.

또한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www.socialw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 실적,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거짓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 등록취소처분까지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등록제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에이블뉴스〉

여장연, 새로운 ‘제5대 공동대표단’ 구성

상임대표 권순기씨 선출...조성옥·유영희 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5대 공동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됐다.

여장연은 지난 1월 31일 2012년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장명숙 상임대표의 사임에 따라 잔여임기(2년)를 수행할 ‘제5대 공동대표단’을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여장연

권순기 공동대표를 상임대표, 전 북여성장애인연대 유영희 대표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또한 기존의 조성옥 공동대표는 현직을 유지한다.

한편 올해 3대 중점 방향으로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및 모성권, 정보문화권 확보를 결정했다.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구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중 주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기립보조기구 등의 지원액을 각각 35만원,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품목별 최대 지원한도액(2만원~15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분기별로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받아

돕기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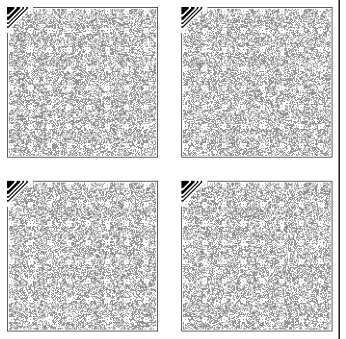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분기별로 신청받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보조기구 지원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신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청각 등록 장애인이다.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청에서 소득 및 장애유형 등 자격 유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7일까지 신청할 경우 1/4분기 중 보조기구가 지원된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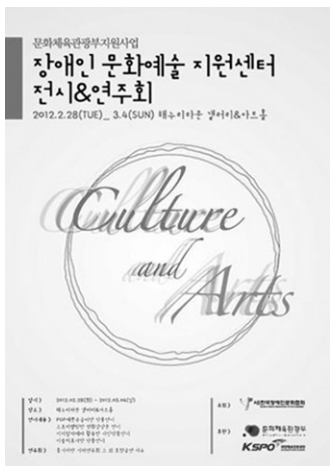
〈문의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02)3707-8042〉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문예센터, ‘전시·연주회’ 마련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해누리타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가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양천구 해누리타운 갤러리와 아트홀에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전시 및 연주회'를 갖는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가 오는 25일(토)부터 3월 4일까지 양천구 해누리타운 갤러리와 아트홀에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전시 및 연주회'를 갖는다.

전시 작품은 POP예쁜손글씨 반의 'POP시화작품', 스토리텔링반의 '영화감상문', 미술치료 사반의 '미술작품', 디지털카메

라촬영반의 '사진작품' 등 다양하다.

또한 연주회에서는 통기타반의 공연과 희망방송 소속의 희망새, 다니엘복지원의 B-boy팀 등이 공연을 펼친다.

한편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문화예술적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참

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6월 개소했다.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에 동참을”

공대위, 연대단체 접수...3월부터 본격 투쟁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각 단체들에게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 활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대위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말 20여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기자회견, 대중상영화제 피켓시위, 서명전, 50일간의 1인 시위 등 활동을 진행해 왔다.

공대위의 목표는 ▲청각 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

▲지체장애인들의 휠체어 이동환경 등 영화관 접근권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단체명, 주소 등이 적힌 공대위의 참여동의서를 작성 후 팩스(02-2157-3365)나 이메일(82803368@ha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공대위는 연대 확대를 통해 향후 오는 3월 초순부터 100일 1인 시위, 영화관람권 촉구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문의 : 공대위 사무국 02-2157-3364>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13위 달성 담금질

국대 선수단, 훈련원 입촌...170일간 훈련 돌입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이 1일 입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12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1일 오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입촌식을 갖고 종합 13위 달성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3개 종목 187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은 영국 런던으

로의 출국 직전인 오는 8월 25일까지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및 원외 훈련장에서 170여일 동안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금 10개, 은 8개, 동 13개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한편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150개국,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150여명(선수90명, 임원 60)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13위(금메달 10~12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체육 예산 439억원

지난해 322억원 대비 36.1% 늘어

올해 장애인 체육 예산이 지난해 보다 36.1%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7일 밝힌 ‘2012 장애인 체육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체육 예산은 지난해 322억9,300만원보다 116억6,800만원 증가한 439억6,100만원이다.

장애인 체육 육성 국고 예산은 77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3억4,600만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

아 경기대회 지원 예산이 1억원 늘어난 11억원, 장애인체육육성 지원 예산은 22억4600만원 늘어난 66억4,7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장애인체육 육성 기금 예산도 362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3억2,200만원 증가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지난해 보다 70억2400만원 증가한 308억1,400만원으로 운영비는 15억

8,100만원 늘어난 47억5,4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은 2억2,500만원 증가한 77억6,200만원이다.

또한 장애인 전문체육 예산은 2억8,200만원 늘어난 60억1,500만원,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지원 예산은 41억3,600만원 늘어난 114억8,300만원,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 예산은 8억원이다.

이외 장애인체육 육성(기금) 중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22억9,800만원 늘어난 35억원, 시도 장애인체육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90억원이 편성됐다.

‘대구시 장애인탁구 실업팀’ 탄생



대구시장애인탁구 실업팀 코치 및 선수들 모습.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대구시 장애인탁구 실업팀’이 창단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오후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장애인탁구 실업팀’ 창단식을 갖고, 출발을 알렸다.

탁구 실업팀은 최삼룡 단장(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최경식(47세) 코치, 최일상(38세), 문성혜(35세), 김정석(39세), 김진성(36세), 이창호(44세) 선수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최 코치는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대구 장애인체육을 상징하는 간판스타다.

5명의 선수 역시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인재들로 전원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탁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현재 선수단은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메달권 진입을 위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4월 총선 체제 돌입!”

오는 4월 11일(수) 실시되는 총선(19대 국회의원 선거)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 심사위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영입, 정책개발 등을 위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양당은 ‘지지세력 확대’를 위해 장애계를 비롯한 여성 · 이주노동자 등과 접촉하며 외연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 새누리당, ‘장애계정책간담회’ 마련 대통령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공약

장애계에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새누리당(前 한나라당)이었다. 새누리당은 기존 한나라당에서 당명이 바뀌기 전인 지난 1월 30일(월) 국회 본청에서 ‘국민 희망 찾기 시리즈’ 두 번째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애인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된 장애인정책들을 향후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상임대표등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주문했다.

먼저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

천의지도 중요하다. 보다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총연합회 최동익 상임대표는 “장애인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등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등 장애인 정책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이에 정책쇄신분과 전재희 위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장관시절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여러 부처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동조했다.

또한 정책쇄신분과 이양희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정책은 장벽을 허무는 패러다임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1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 희망 찾기 시리즈’ 두 번째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애인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로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새누리당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 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지난 6일(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총선 공약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데 당 총선공약개발 회의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은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과 전문대학에서 의

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은행대출시 우대금리 지원 등 행정적 · 재정적인 유인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계 현안 중 하나였던 민간보험사들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지난 8일(수)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현행 상법을 개정,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주영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차별 행위로 보고(시정율) 권고했고, 유엔 국제협약도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7대 장애인 공약’ 발표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연금 현실화 등 공약



민주통합당이 2월 1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2 총선 장애인 공약 발표 및 장애계와의 간담회’에서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망은 민주통합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총선 ·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명숙 대표가 발표한 ‘7대 장애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개정 또는 국가장애인위원회법을 제정을 통해 국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면 집행 내용을 감독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위상 제고 및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급대상을 기존 56%에서 80%로 대폭 강화하고, 기초급여 A값을 매년 1%씩 인상해 오는 2017년까지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을 증액한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추가 확충, 진료장비의 보급 등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을 강구하고, 비만, 당뇨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검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먼저 저상버스는 현재 3899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6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318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각각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한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지원과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여성 · 소수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소수 및 중증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화한다.

▲ 수요에 맞는 개별 서비스 지원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노래 향한 꿈, 장애가 막을 수 있나요?”

지체장애 3급 김하은양, 서울음대 당당히 합격

등록금 못 구해 ‘발 동동’...서울대, ‘등록금 지원’ 약속



서울음대에 당당히 합격한 지체장애3급 김하은 양.

지체장애를 딛고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시 모집 특별전형에 합격한 김하은(21·광주예고 3)양. 김 양은 짧은 팔에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꺾인 장애(지체장애 3급) 상태로 태어났다. 현재 두 팔은

비장애인보다 확연히 짧고, 오그라들어 있으며 그로 인해 손이 닿는 범위가 비장애인들보다 좁아 스스로 옷의 목 단추를 채울 수도 없다. “왼 팔이 불편해도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남들과 다른 외모에 더 위축됐다”고 밝힌 김 양은 초등학교 때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이를 노래로 이겨냈다. “성악가를 꿈꿨던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주위에서 말할 정도로 김양의 노래 실력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여서 찬송가를 부를 기회도 많았다. “노래할 때가, 노래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줄 때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고 소회할 정도로 노래는 김 양의 탈출구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2007년 중학교를 졸업한 김양

은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경기도 양주의 대안학교 ‘쉐마기독교학교’에 진학했다. 이후 학교에 처음으로 신설된 성악수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김 양은 교사의 권유로 광주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당당히 합격하게 된다.

그리고 ‘음대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가진 이후, 김양은 더 이상 마음으로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신체적 장애도, 주위사람들의 놀림도, 어려운 가정형편도 ‘노래하고 싶다’는 열정과 ‘음대 진학’이라는 꿈으로 극복했다.

김양의 열정에 감명을 받은 주위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광주의 한 장애단체가 김양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월 서울음대 9명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서울음대 합격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김 양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쳤다. 400여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시골 개척교회 목사인 아버지의 형편으로는 목돈마련이 쉽지 않았고, 그동안 학비를 후원해왔던 장애단체가 형편이 어렵게 되면서 장학금 지급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 또한 있는 법’. 김 양의 이야기를 접한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게 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10일(금) “오 총장이 광주예고 김하은 학생의 소식을 접하고 돕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며 “총장과 보직교수 10여명이 모금을 해 등록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총장은 김하은 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등록

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며 항상 희망을 품고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21세를 맞는, 김하은 양은 고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입학한 동기보다 두 살이 많다. 대안학교를 2년 다닌 뒤 예고 늦깎이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한 탓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이제부터 시작이죠. 능력보다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엔 하기 어려웠던 것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장애가 제 앞 길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김 양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책과 강연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호주의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 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급 시각장애인, 안나푸르나 등반 도전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 이룬 송경태씨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극한 사막 마라톤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1급 시각장애인이 이번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에 도전한다.

주인공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경태(51)씨. 송씨는 오는 25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전진기지(5천여m) 등반을 목표로 15일 출국한다.

안나푸르나는 산세가 험난한 데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돌변하는 기상과 수시로 눈사태가 발생해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로 꼽힌다.

험준한 산악을 등반하는 이유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기에 안나푸르나는 많은 산악인의 도전 본능을 자극했다. 박영석씨 등 전 세계 많은

산악인이 이곳에서 사고로 실종되거나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고개를 젓는데도 꿈이 있기에 도전한다는 송씨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서 “고통이 클수록 도전의 의미가 크고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고 등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등반을 위해 매일 같이 30분 이상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하체근력 강화훈련 등 기초체력 훈련을 해 왔다.

또 주 1회 1천m 이상의 산을 등반하고 달리기 훈련을 병행하는 등 최고의 컨디션으로 등반에 임한다는 각오다.

그는 한국산악회 전북지부 구조대장 등 2명과 함께 극한

에 도전할 계획이다.

송씨는 2005년 사하라사막 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중국 고비사막대회, 2008년 3월 칠레 아타카마사막 대회, 2008년 12월 남극대회, 2009년 5월 나미브사막대회를 모두 완주해 ‘극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2010년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 마라톤대회에서 7구간 100km를 종주했다.

1982년 군 복무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사회복지학으로 전공을 바꿔 대학에 다시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점자 주간지 기자로 일하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극한 사막 마라톤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경태 씨.

던 그는 2000년 전주에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열고 점자판 전국여행 가이드북, 아동문학전집, 촉각점자 동화전집 등을 발간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에 힘쓰고 있다.

송씨는 “장애인으로서는 겪는

일상의 어려움에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북극과 아마존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치과는 어디?

서울, 경남, 충남 등 ‘장애인 전문치과’ 소개



푸르메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전문치과 푸르메나눔치과의 진료장면. ©에이블뉴스 DB

장애인 A씨는 오래전부터 치아가 계속 아파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A씨로서는 거의 2~3층에 위치한 치과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뿐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그에게는 치과진료비가 너무나 비싼 값이기 때문이다.

‘충치정돈 관찰겠지’라고 참아왔던 A씨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작은 충치를 키워오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결국 전체 틀니를 하게 되는 비극을 맞고 말았다.

이렇듯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은 일반 치과에서는 치료가 불가능 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치과 치료 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일반치과를 방문하기에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치과 병원을 소개한다.

■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동구에 위치한 장애인치과 전문 병원은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면 이용가능하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진료가 없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은 비보험 진료과목에 대해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50%이다. 내원 시에는

복지카드와 국민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면 된다.

장애로 인해 행동조절이 안되거나 불수의적인 움직임으로 치료를 받기 힘든 환자를 위해 전신마취 및 진정요법을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2개의 수술실과 2대의 전신마취 기계 및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구비했으며, 환자의 협조도 및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전신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진료과목은 ▲임플란트 ▲치과행동언어치료클리닉 ▲구강질환예방클리닉 ▲심미치료 클리닉 등이다.

문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전화 02-2282-0012, 홈페이지 www.sdh.go.kr)

■ 단국대 치과병원 충남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치과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유일하다.

진료대상은 장애 유형 및 등급,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며 내원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감면 혜택은 1~3급은 본인부담금 20%, 4~6급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진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다. 일요일은 진료가 없다.

장애인 일반치과 치료 과목에는 보존(충치, 신경)치료, 보철(틀니, 임플란트)치료, 치주 치료, 교정 치료, 소아치과 치료 등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치료에는 근육의 경련 등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전신마취시술, 진정요법 등이 있다.

문의: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화 041-550-1689, 홈페이지 http://dudh.dankook.ac.kr)

■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호남지역의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기와 진정마취기를 비롯해 장애인 전용 진료대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매월 2회 장애인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시설을 돌며, 치과병원에 오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치고 있다.

특히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광주지역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구강질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전담 치과진료기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요일은 진료가 없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와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내방, 1층 접수대에서 접수 후 2층에 위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이동하면 된다.

진료과목은 ▲치아우식증(충치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치료 ▲전신마취 수면치료 등이다. 별도의 장애인 감면혜택은 없다.

문의: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화 062-530-5780, 홈페이지 www.cnudh.co.kr)

■ 푸르메나눔치과

푸르메나눔치과는 민간최초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치과로 지난 2007년 7월 개원했다.

푸르메 나눔 치과는 경제적인 상황과 장애정도, 치료 방법·기간 등을 담당의사와 재단 사회복지사가 합의한 뒤 의료 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30~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 1급~3급은 30%, 장애 4급~6급은 2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진이다. 진료실은 1층에 마련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내방하는 데 편리하다.

푸르메나눔치과를 처음 방문할 시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과목에는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 ▲보철과 ▲예방치과 ▲소아치과 등이 있으며, 의료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비를 대폭 낮췄다.

문의: 푸르메나눔치과(전화 02-735-0075, 홈페이지 www.pumee.org)

■ 경남장애인전문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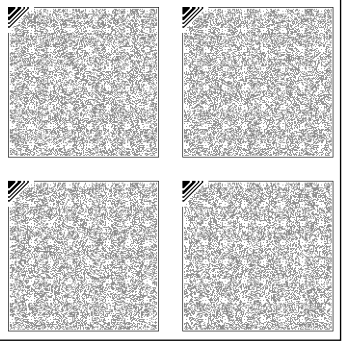
진주의료원 2층에 위치한 경남장애인전문치과는 경상남도 1호 장애인치과다.

장애인 전문치과진료를 위해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또한 2억원을 들여 유니케어, 디지털 센서 등의 장비 등을 구입해 설치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진료가 힘들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진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새롭게 개선했던 것이 특징이다.

진료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다. 별도의 장애인 감면 혜택은 없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문의: 경남장애인전문치과(전화 055-771-7229, 홈페이지 www.jinjunc.or.kr)

■ 구로구 장애인치과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 1~3급을 위한 장애인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매월 첫째, 둘째, 셋째수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한다.

진료 과목은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스켈링 ▲잇몸치료 ▲발치 ▲충치 치료 등이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무료다.

진료를 원하는 장애인은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한 뒤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 진료장소는 구로구보건소 4층에 위치한 장애인치과다.

문의: 구로구보건소 장애인치과(전화 02)850-3075, 홈페이지 www.guro.go.kr/health/NR_index.do)

■ 강서구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무료로 치과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치과의사가 매주 1회 불소도포, 유치발치, 충치치료(아밀감, 레진), 실란트 등의 진료를 한다. 또한 치위생사가 상주해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방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면 모두 가능하다. 치과 진료비용은 무료다.

문의: 강서구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02-2662-3491)

새보람 독자기고 및 메일링 확대 추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 '월간 새보람'의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1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보람을 평가함은 물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신문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새보람이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기고)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고 주 제 : 자유주제
- 기 고 마 감 : 매달 8일까지 이메일(hambaknun30@nate.com)
- 경 품 : 천연비누세트
- 당 첨 발 표 : 새보람 23면 게재

※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 중이니, 컴퓨터를 통해 좀 더 빨리 새보람을 접하길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02-2289-438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02)2289-4381, hambaknun30@nate.com

서울,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 운영

유형별 장애인, 교통 환경 조성사업 전 과정 참여



인도 곳곳에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볼라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접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전 과정에 실질적 이용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서울시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이하 마실그룹)’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간다고 지난 10일(금)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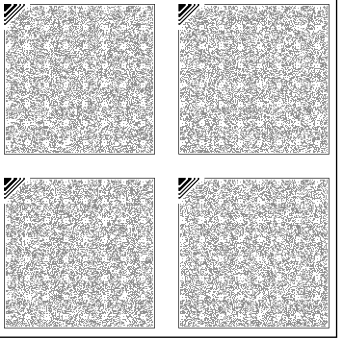
서울시는 지체·시각·청각·여성 등 이동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에서 5명, 이동편의 관련 전문기관에서 2명, 보행·교통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을 추천 받아 ‘마실그룹’을 구성했다. 이 중 장애인은 7명이다. 마실그룹은 시설개선 설계부터 시공, 마무리 검토단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먼저 마실그룹은 고속터미널, 서울숲, 남대문시장 등 사업대상 후보지 8개소를 현장조사하고 이중 1개소를 직접 선정한다. 이후 전문 설계업체와 대상지의 불편사항과 개선방향을 협의·조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계와 공사에 반영한다.

또한 마실그룹은 실제 이동 어려움을 설계업체에 제시하고 이를 현장 여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설계업체와 협의해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시공에 들어가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과정의 수정·보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감독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주변의 불편사항, 이동편의시설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소리로 읽는 새보람



도록 ‘장애인 이동편의 커뮤니티 매핑’ 제작에도 나선다.

김재정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은 “앞으로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교통복지사업을 추진해 이용자에 최적화된 이동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부산시의회, ‘부산 인권조례’ 제정

부산 시민의 기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이경혜(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월)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권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부산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와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와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때”라면서 “앞으로 인권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시민 모두 실천해야 하는 공동 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산, 저소득장애인 ‘교육비 지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등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 이하 울산시)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3급 장애인 가구 중 본인 또는 자녀들이다. 단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

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며, 그 외 교과서대(119,200원), 부교재비(36,000원), 학용품비(49,500원) 등이다.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울산시청 (055-229-3445)〉

인천서구, 중고보장구 ‘무료’ 지원

전동스쿠터, 전동·수동휠체어 지급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이하 인천시) 서구는 장애인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보장구 지급기준에 부합되는 수급자)에게 중고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 품목은 기증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이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구는 전동휠체어, 전동



인천시는 수급자 및 장애인들을 위해 중고보장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스쿠터, 수동휠체어의 기증도 신청 받고 있다.

〈문의: 서구청 사회복지과 (032-560-5873)〉

수원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최대 100만원...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올해부터 수원시(시장 염태영, 이하 시) 거주 장애인가정이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지원금은 여성장애인에 한해 지급됐지만 지난 6일(월)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가정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는 모가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으로써,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여야 가능하다.

지원액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 100만원, 4급~6급 70만원이다.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지난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02-228-2217)〉

전북도의회, 본회의 수화통역 시작



지난 8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의 수화통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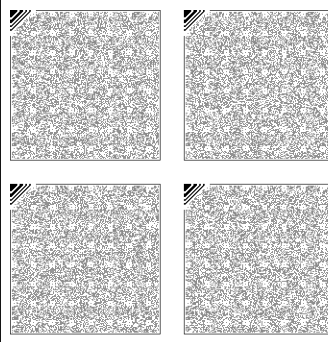
전라북도의회(의장 김용화)가 본회의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수화통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8일(수)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의안심의 등 전 과정이 수화통역됐다. 통역 내용은 전라북도의회 TV방송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됐다.

김용화 의장은 "장애로 의사

소통이 어려워 다양한 정보 취득의 기회에서 소외된 도내 1만 4천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청각장애인들이 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편 현재 광주나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의회도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 장애인 남자수영팀 8일 창단

8일 창단식...감독, 선수 6명으로 구성



장애인수영 실업팀 창단식 기념촬영 모습. ©충북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첫 실업팀이 창단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시종, 이하 체육회)는 지난 8일(수) 도청회의실에서 '장애인 남자수영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감

독 출신인 강성인씨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2008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민병언 등 선수 6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로써 충북도내 장애인 실업팀은 2004년 1월 창단된 청주시청 남자 사격팀을 포함해 2개가 된다.

도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업팀을 창단하기로 했다"며 "선수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훈련하게 돼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충남 천안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월 26일(목)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와 문화재 지정 부동산 및 외국인 투자기업 보유재산 등에 대

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를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항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개정안은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원주,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수영장·재활치료실 등 3층 규모...2014년 완공

강원 원주지역에 도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건립된다.

원주시(시장 원창목, 이하 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 지원과 여가활동 기회 제공, 체력증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월 27일(금) 밝혔다.

시가 태장동 6천36㎡의 터에 12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인 장애인 전용체육관에는 수영장과 다

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올해 토지보상을 마친 뒤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14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원주시의 한 관계자는 "원주는 물론 도내에도 제대로 된 전용체육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맘 놓고 운동 한번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용체육관이 건립되면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장애인 전문병원' 2개소 증설

4억원 투입...장애인전문치과·산부인과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 이하 도)에 '장애인 전문병원' 2개소가 증설된다.

도는 올해 동부권에 장애인 전문치과, 여성장애인 전문산부인과 각 1곳씩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금)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6일 '제1호 장애인 전문치과', 6월 30일 '여성장애인 전문산부인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에 자리 잡은 장애인 전문치과는 유니케어, 디지털 센서, 파노라마, 게이트 등의 장

비를 갖추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1천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창원산재병원에 마련된 여성장애인 전문산부인과는 고주파수술기, 전동검진대 등의 최신 필수장비를 갖춰 여성 장애인들이 주변의 시선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장애인 전문치과,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시, 장애인운전면허 교육비 지원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시 거주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월 31일(화) 밝혔다.

시는 제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삼다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한라자동차학원 등 총 4곳과 협약을 맺고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는 50만원, 대형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는 3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비는 기능 및 도로 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 취득까지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권증진 기본계획 실현 ‘회의적’

학계 및 장애단체 실무자들이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는 지난 3일(금)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갖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내용·실천 체계를 발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서울복지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는 지난 3일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갖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내용과 실천 체계를 발표했다. 공청회 모습. ©에이블뉴스

학계 및 장애계 실무자들, 이구동성으로 지적 인권센터 차별성 없어…인권, 복지 합친 계획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

서울시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친화적 서울시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장애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무장애도시 구현을 위한 접근권과 의사소통 기반 강화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장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 생활권 보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편견 제거 위한 교육권 보장이다.

6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서울시 장애인차별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권차별의 상담과 사례연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한다. 또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인권침해의 조기발견·신속한 구제지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 장애인차별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주거와 자립의 생활권 보장 ▲노동권과 소득의 보장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육강화 ▲건강권 보장과 의

료지원 ▲문화·여가의 향유 ▲이동권·정보접근권의 보장 ▲행정·사회복지서비스 등 총 8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 실현 가능성 ‘회의적’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계획의 미흡함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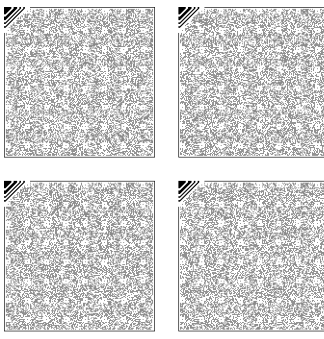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선자 교수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유사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와의 두 단체의 협력기관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아예 차별조사, 장애차별인식교육, 연구 등 세부적으로 역

할 범위를 나누던가, 업무의 경중에 따라 나누던지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기능이 너무 많다. 규모가 얼마나 크게 하려는 지 모든 일을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인권위나 인권침해 예방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특화된 기능(주요기능)이 있다면 인권센터가 설립된다 해도 차별성이 없어 묻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는 “지금 연구가 정책 방향은 거대하고 추진과제는 현실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 정책 방향의 수준까지는 못 쫓아가는 상황”이라면서 “정책방향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단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는 5개년 안에 달성하기는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확대에서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을 얘기하자면 2012년에는 600명, 2016년에는 1000명을 하겠다고 잡혀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이 우리나라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개발하려면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올해 600명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도 “인권증진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함께 넣은 기본계획으로 보인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편의증진 5개년과 장애인정책개발 5개년을 다 합친 것 같아 차별성이 의심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였지만 기본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체계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이론에 불과하다. 특히 지표개발은 복지수준을 넣어놔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연구한 각 시도별 복지수준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역할·기능 강화해야”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성민사회복지연구소는 10일(금) 순복음비전센터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 민법에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930조 3항, 제936조 4항 등에 법정후견인(성년, 한정, 특정)은 개인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성년후견인지원센터)까지 수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성년후견인지원센터(법인)는 가정법원에 의해 법정후견인과 후견인을 감시할 임의후견인(후견감독인)까지 될 수 있다.

법정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인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한정된다.

김 위원장은 “근거규정은 없지만 법인이 후견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성년후견인지원센터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임의후견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사업, 신청절차 등의 상담 기능과 함께 시민후견인(자원봉사 후견인) 모집에서부터 양성 교육 및 재교육, 관리까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후견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피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와 방법 진단·연계, 가정법원의 심판 및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후견감독인 등을 수임,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연구 사업 등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년후견인지원

센터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피후견인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후견업무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처럼 대상자가 광범위한 사안에 대응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해 자원의 연계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문직이 적은 지역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피후견인과의 신뢰관계 형성, 애매한 책임, 신속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 요양 병원

SAEBORAM HOSPITAL

많은 분들의 성원을 통해 새보람요양병원이
병상 확충은 물론, 통증전문의를 영입하여
'통증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2.3492.7888

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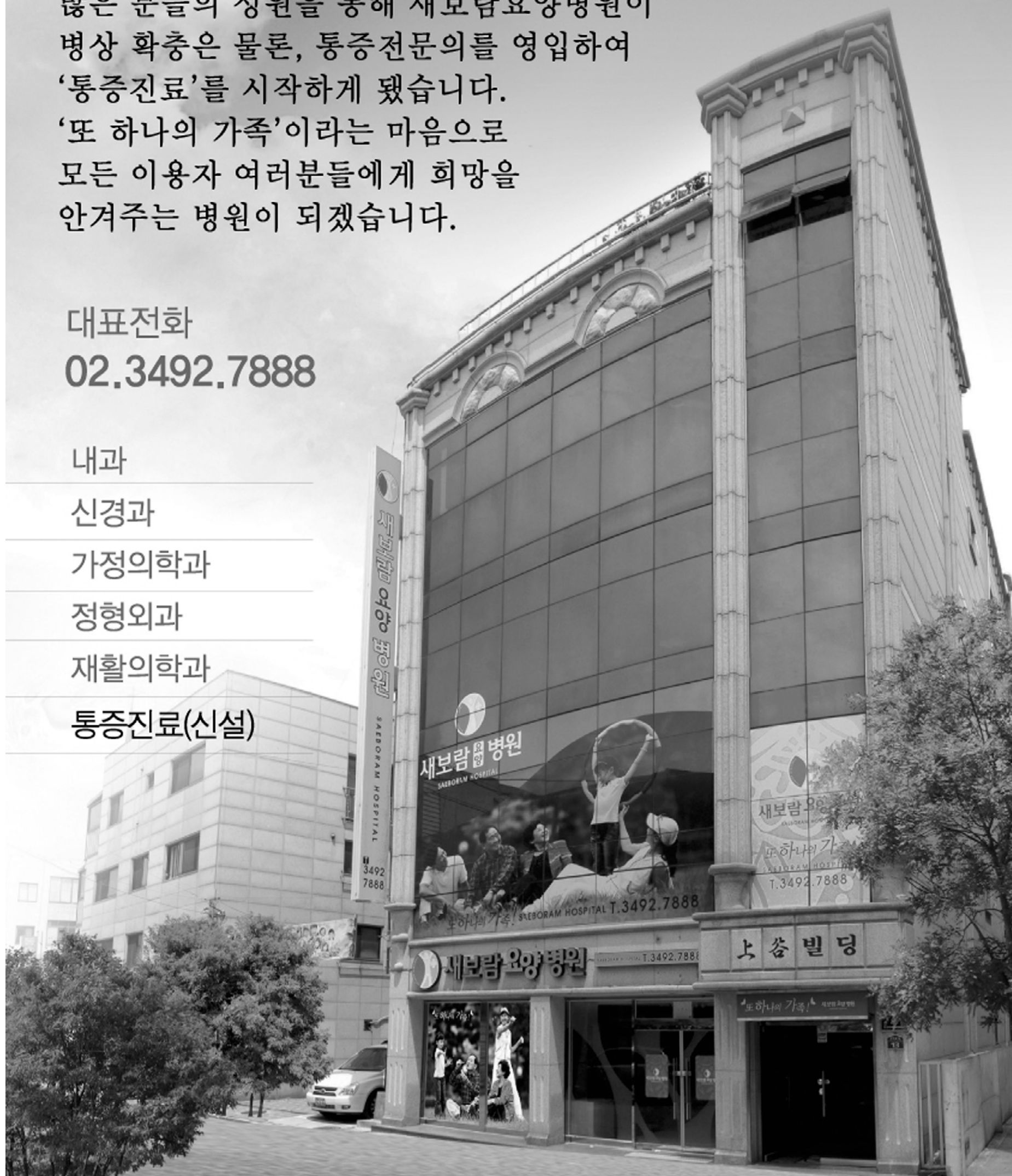
신경과

가정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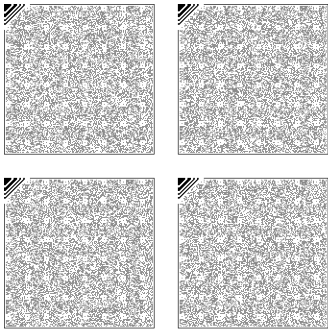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진료(신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서울시, ‘장애인자립자금’ 장기저리 대출

최저생계비 250% 이하 성년 장애인 대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구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천 2백만원, 보증대출 2천만원이며 5천만원 이내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연 고정금리 3.0%, 융자기간 5

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 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이며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백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백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 1명당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을 더 추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조건에 적합한 자금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 생활비나 주택전세자금·출퇴근

용 자동차 구입·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현재 근로자인 장애인은 창업 및 취업 훈련 용도로는 대출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를

거쳐 최종대출이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가구 85가구에 17억원을 대여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042)>

<출처-에이블뉴스>

서울우정청 장애인 경쟁률 ‘46대 1’

5771명 응모...평균 경쟁률 84.9대 1



서울지방우정청이 실시하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경쟁률이 46대 1에 육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68명을 채용하는 2012년도 기능 10급 계리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5771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84.9 대 1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금) 밝혔다.

분야별로는 63명을 뽑는 일반인의 경우 5640명이 지원, 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2명 채용에 92명이, 저소득층은 3명 채용에 39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남녀 비율은 남자가 2049명(35.5%), 여자가 3722명(64.5%)으로 여자의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1세에서 40세

사이가 2,670명으로 가장 많고 21세에서 30세 사이가 2,3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41세에서 50세 사이 지원자는 628명으로 10.9%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51세 이상도 7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응시자들은 오는 3월3일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며 면접시험을 거쳐 4월2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체국, 우편집중국,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금융관련업무, 회계업무, 계산관리업무, 우편통계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취업정보

| | 업 체 명 | 근무지 | 연령 | 성별 | 근무내용 | 급여 | 보험 | 연락처 |
|----|--------------------|----------|--------|----|----------------------|-------------|------|--------------|
| 1 | (주) 삼화유비텍 | 경기도 화성시 | 40세 이하 | 남 | 불량품 유무 선별작업 | 월 105만원/상여금 | 4대보험 | 02-2289-4322 |
| 2 | 모던조이 | 서울시 중랑구 | 40세 이하 | 무관 | 미싱보조 | 월 11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3 | (주)정립전자 | 서울시 광진구 | 50세 이하 | 무관 | pcb 조립 | 월 902,880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4 | (주)티지엠 | 서울시 전역 | 65세 이하 | 남 | 아파트 경비직 | 월 11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5 | 대흥사 | 서울시 전역 | 40세 이하 | 남 | 문구 생산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6 | (주)나라개발시스템 | 서울시 전역 | 65세 이하 | 남 | 소독원 | 월 14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7 | (주)코스트코 | 경기도 일산 | - | 무관 | 대형마트 진열, 캐시, 안내 등 | 시급 8,200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8 | (주)유전실업 | 서울시 전역 | 68세 이하 | 여 | 건물 및 은행 미화 | 월 8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9 | (주)씨피엘 | 경기도 안산시 | 40대 이하 | 남 | 사출 | 월 17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0 | (주)오뚜기토탈시스템 | 서울시 강동구 | 60세 전후 | 남 | 빌딩경비직 | 월 13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1 | (주)메디엔젤 | 서울시 성동구 | 45세 이하 | 여 | 전화상담 및 사무직 | 월 13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2 | 종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 서울시 종로구 | 30세 이하 | 무관 | 바리스타 보조 | 시급 4,320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3 | (주)선정인태내셔널 | 서울시 종로구 | 40세 이하 | 여 | 아웃바운드 | 월 11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4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소 인쇄사업 | 경기도 고양시 | 40세 이하 | 여 | 사무직 | 월 10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5 | 조은프로소싱 | 서울시 영등포구 | 30대 초반 | 무관 | 사무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6 | 조은프로소싱 | 서울시 영등포구 | 30대 초반 | 무관 | 사무직(반일제) | 월 6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7 | (주)광원종합상사 | 서울시 전역 | 68세 이하 | 여 | 미화직 | 월 7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칼럼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복지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사회 가장 화두가 되는,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다른 아닌 ‘복지’일 것입니다.

‘복지’라는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줄인 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유아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부녀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다문화 복지, 탈북자 복지 등 대상자를 지칭하는 복지도 있고, 교육 복지, 문화 복지, 산업 복지, 고용 복지, 정보 복지 등 어떤 영역이나 분야를 품고 나가는 복지도 있습니다.

과연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복지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어로는 welfare(웰페어), well-being(웰-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로 뜻을 풀이를 하면 ‘행복, 안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지라는 단어는 좋은 말입니다.

경제와 복지가 양측되어서 국가 경쟁력의 축으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elfare라는 영어는 정말 좋지 못한 단어로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welfare는 1997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reform(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welfare는 시혜적 복지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welfare는 안되고 workfare(일을 통한 복지)로 개혁한 것입니다. 일을 통한 복지가 하나의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복지라는 어원은 어디서 기원하고 있습니까? 희랍어의 본딧말 에우다이모니아(eudemonia)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행복, 평안’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다움’이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즉 ‘복지적인 삶’이란 ‘인간다운 삶’이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기

반으로 한 복지가 진정한 인간다움의 복지’라고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다운 복지를 승화시키기 위해 올 한 해 몇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혜적 복지로는 인권 복지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복지로 복지 경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통이 복지라는 것을 구현시켜나가야 될 겁니다.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이 수화나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책 당국과 국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복지의 지

름길입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삶이 곧 복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사회는 이미 경제도 하나요, 정치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국제 금융 위기가 우리 사회를 이미 안방까지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도 우리의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지의 기본입니다. 또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복지를 실현 시키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황윤상 (변호사)

Q) 甲은 일용노동을 하며 힘들게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술취한 行인 乙이 갑에게 시비를 걸어서, 甲은 피하려고 하였으나 乙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여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行인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甲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甲은 안타깝게도 술취한 行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甲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민·형사합의 2)형사배상명령제도 3)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1. 합의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乙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甲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해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乙이 양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라는 제도는 乙이 먼저 甲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甲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상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가 있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취지가 담긴 합의가 있습니다.

甲이 乙과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乙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2.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

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갑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실수입(일정기간 동안 일용노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은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복하지 못한 손해나 배상명령 기각될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과는 달리 갑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보령시 '얼굴 없는 기부천사' 화제 '사랑의 쌀' 3년째 기탁...저소득층에 전달



3년째 쌀을 익명으로 기부한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이야기가 충북 보령시에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실시한 '사랑의 쌀&무료급식 나누기' 모습)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3년째 충남 보령시에 쌀을 맡겨 놓고 사라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목) 보령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수) 오후 2시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시청에 전화를 걸어와 "구내식당 옆 계단에 쌀을 놓았으니 좋은 곳에 써 달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곳에는 10kg짜리 쌀 10포대(10kg)와 2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마른 미역 3봉지가 놓여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작년과 재작년

설 명절 전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쌀 80kg를 기부했다.

이 남자는 시청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해마다 전화를 한 뒤 물품을 놓고 가고 있다.

시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사랑의 쌀'은 장애인작업장에, 후원금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곽현정 시 주무관은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각박한 세상에 이런 기부자가 있어 우리에게 한줄기 환한 빛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과
학꿈나무팀
의 사회봉사
활동모습

개팀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재능활용 여부와 계획서 충실도, 활동 참신성을 고려해 봉사단을 선발하고, 선정된 팀에게는 교통비,

LG전자, 임직원 '재능기부' 대폭 확대

오는 29일까지 '자원봉사단 3기' 모집

LG전자가 사회공헌활동인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3일(월)부터 오는 29일(수)까지 임직원이 자신의 특화된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라이프스 굿(Life's Good) 자원봉사단'의 3기를 모집한다고 12일(일) 밝혔다.

2010년 31개팀 200명으로 처음 발을 내디딘 이 봉사단은 지난해 53개팀 1천여명으로 확대됐다. LG전자는 올해 100

활동비, 교재비 등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봉사단은 지난해 서울과 평택, 청주, 구미, 창원 등 LG전자 각 사업장 인근 도시는 물론, 산골마을과 섬마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펼쳤다.

특히 다양한 직군의 임직원들은 개개인의 전공을 살려 가전제품수리, 장애인의 사회 적응훈련,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및 저소득가정 가족사진 촬영 등을 벌였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 | | |
|-----------------|---------------|----------------|
| 일반회원 (2천원/월) | 일반회원2 (5천원/월) | 일반회원3 (1만원/월) |
| 특별회원1 (3만원/월) | 특별회원2 (5만원/월) | 특별회원3 (10만원/월) |
|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 기금회원 | 물품회원 |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2년 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시연, 고인철, 김구환, 김민금, 김성우, 김영진, 김유림, 김정태,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태우, 김환경, 김현석,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신병욱, 손영주, 송효율, 오희경, 유재복,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창호, 이태훈, 임채종, 정다운, 정선용,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영민, 최인준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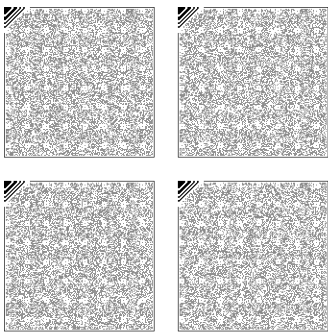
정답
힌트

지난 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우승자의 국적은?

| | | | | | | |
|----|---|---|--|----|----|--|
| ★1 | | 2 | | | | |
| | | | | ★3 | 4 | |
| | 5 | | | | | |
| | | | | 6 | | |
| 7 | | | | | | |
| | | | | 8 | ★9 | |
| 10 | | | | | |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 | | | | | | |
|-----|----|---|----|-----|---|----|
| 1★주 | 말 | | | 2★제 | 대 | 3혈 |
| 사 | | | | | | 의 |
| 4위 | 5안 | | | | | 누 |
| | 창 | | | | | |
| | 6호 | 랑 | 7이 | | | 8자 |
| | | | 9적 | 10분 | | 전 |
| | | | | 11재 | 건 | 축 |

1월호 정답

제 주

당첨자

이영훈

서울 성북구 장위동

유혜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김숙자

강원 철원군 철원읍

| 가로열쇠 |

-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와 하단리에 딸린 섬. 면적 11.2㎢, 길이 9km, 평균너비 1.4km, 하안선(河岸線) 길이 21km이다. 1388년 (우왕 14) 명나라의 요동(遼東)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李成桂) 등이 이 섬에서 회군해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 유명하다.
-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 특히 겨울철에 날씨가 좋고 바람이 없는 밤부터 아침에 걸쳐서 지상 부근의 공기가 몹시 차가워질 때, 매연이나 배기 따위를 핵으로 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가 한데 엉겨 생긴다.
-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름.
- 〈미술〉 12세기 중엽에서 15세기까지의 중세 유럽의 미술 양식. 건축 분야에서는 뾰족한 지붕과 둥근 천장, 회화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 미니어처 따위가 특징이다.
- 전쟁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 잘 있거라’
- 〈약학〉 타박상, 근육통, 신경통 따위에 쓰이는 소염 진통제. 제형(劑形)에 따라 첩부제(貼付劑)와 습포제(濕布劑)로 나뉜다.
- 〈사회〉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

| 세로열쇠 |

- 서양 골패의 하나.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고안되었으며 어떤 현상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일을 뜻하는 이론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 현상
- 〈문학〉 미국의 작가 멜빌이 지은 해양 소설. 흰 고래 모비 딕에게 한쪽 발을 잃은 후 복수의 화신이 되어 버린 노선장 에이하브의, 광기와도 같은 추적을 뼈대로 운명에 도전하는 인간을 상징적으로 그렸다. 1851년에 발표하였다.
- 〈운동〉 두 사람이 맞서 격투를 벌여 승패를 가리는 경기. 유도, 씨름, 권투, 레슬링 따위가 있다.
- 〈물리〉 주파수가 높은 파동이나 전자기파. 대체로 3~30MHz의 주파수를 가진 것이다.
- 가진 것이 없음. 법정스님의 자신의 직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괴로움과 번뇌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하는 책의 이름.
-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또는 장성(將星)이나 그 계급을 속되게 이르는 말.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9일(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앞에서 개최된다. (사진-지난 20회 대회 폴코스 주행 모습)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강동을 세계로

2012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2년 4월 29일(일) AM 08:00

잠실올림픽주경기장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